

기 자 회 견 문

건설사와의 수상한 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이번에는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진수 사장은 최근 광고비와 회사발전기금을 신문보내기로 임의 전환해 그 수수료를 챙겼다. 광고비와 회사발전기금은 명백한 공금이다. 이러한 공금을 마치 자신이 신문확장에 기여한 것인양 명목을 바꿔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다. 명백한 횡령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공금을 신문확장이란 명목으로 교묘히 변경해 수수료를 챙길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파렴치한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도 구성원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는데, 사장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건설사와의 수상한 거래'를 수사 중인 경찰에 공정 수사를 요구한다. 수사 대상인 김진수 사장이 언론사 대표여서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거나, 만약에 있을 외압에 굴복할 경우 1만 5천여 언론 노동자는 물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검찰은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김진수 사장을 철저히 수사하라.
- 하나. 경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언론과 자본의 유착을 일벌백계하라.
- 하나. 언론노동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진수 사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1년 12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언론공공성 지키기부산연대,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